

“7배 비싼 도서·산간지역 택배비 해결을”

시·도의회운영위 26일 정기회의서 만장일치로 채택 위성곤 의원 발의한 ‘물류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내륙 도시지역에 비해 7배 높은 택배비를 부담하는 제주도민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에 전국 지방의회가 동참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5차 정기회의에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이 제안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물류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물류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지난 1월 발의한 것으로 제주를 포함한 도서·산간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비용 지원 등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역별 물류 서비스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물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생활 물류서비스 비용은 내륙 도시지역보다 품목별로 가전제품의 경우 21배, 생활용품은 11배, 전자기기는 9배 등 평균 7.1배나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주도민은 1년간 1인당 평균 50차례 물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내륙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원, 제주도 전체로는 600억원 이상의 물류서비스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다. 물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이끌어 낸 김용범 의원은 “제주도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물품을 주문시 높은 물류비 부담뿐만 아니라, 역으로 감골을 비롯한 각종 농수축산품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에도 높은 물류·화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획득

국내 최고 보안 수준 인증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인증 제도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기관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인증 제도다. ISMS 인증을 획득하려면 관리체

계 수립 등 2개 영역·80개 기준을 토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주도는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보안전문컨설팅 업체의 컨설팅 등을 실시해왔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제주도의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보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제주해양 특화형 연구·개발 과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해양수산분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지역 특화형 R&D 연구과제로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올해 지역 특화 연구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청과제 중 자체심사를 거쳐 총 4개의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과제는 ▷제주 주변수역 해양포유류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방안 마련 ▷제주 해양치유산업 자원 발굴 및 실용화 방안 연구 ▷어선 기인 해양쓰레기 발생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마을어장 내 오분자기 방류방법과 관리기술 전문교육이다.

‘제주 주변수역 해양포유류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방안 마련’은 제주 주변수역의 해양포유류 서식실태를 조사하고 자원회복 방안 및 보호대책, 체계적인 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주 해양치유산업 자원발굴 및 실용화 방안 연구’는 제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치유 자원발굴과 실용화 방안 연구를 통한 제주형 해양치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어선 기인 해양쓰레기 발생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는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중의 하나인 어선어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실태를 조사하고, 어선기인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기 위해 추진된다. 고대로그자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하천 지형 분석을 통한 하천 관리체계가 전국 최초로 제주에 구축된다. 디지털 트윈 방식의 플랫폼이 도입되면 하천 관리 능력이 한 단계 향상되는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1차 사업을 통해 수심이 20m로 확인된 천지연 폭포. 사진-한라일보 DB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하천 관리체계 구축

도, ‘디지털 트윈 방식 하천 플랫폼 구축’ 1차 완료 천지연폭포 수심 20m 확인하는 등 일부 성과 거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하천 지형 분석을 통한 하천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디지털 트윈 방식의 하천 플랫폼 구축’ 1차 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 방식의 하천 플랫폼 구축 사업은 6개의 하천을 대상으로

항공수심라이다 장비를 활용해 52km 구간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하천플랫폼에서 3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하천 지형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항공수심라이다의 측량 성과를 다양한 공간정보 파일인 TIN(불규칙 삼각망), DSM(수치표고모형), DEM(수치표면모형) 및 음영기록도로 변환해 생성을 지원함에 따라

하천현황, 하천자원, 하천제방, 하천시설물, 인·허가의 정보 관리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디지털 트윈 방식의 하천 플랫폼 도입을 통해 하천관리 능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번 플랫폼을 통해 모든 데이터를 비교·분석하고 관련 데이터의 편리한 갱신 등으로 최적의 효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근천의 경우 수심 1.5m로 확인 가능하며, 연외천에 포함된 천지연 폭포 수심은 20m인 것을 확인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에너지바우처 서둘러 사용하세요”

사용기한 4월 30일 만료

제주특별자치도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의 사용 기한이 오는 4월 30일을 기해 만료됨에 따라 서둘러 이용권을 사용해달라고 29일 당부했다. 도는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8000원, 2인 가구는 12만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5만2000원이다. 이사 등으로 주소 등이 바뀐 지원

대상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바우처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도내 8096가구를 대상으로 6억2300만원의 난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제주해녀문화총서-성산·표선편’ 발간

도 “총 7권 발간할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500만원을 투입해 제주도의 마을별 바다의 지형과 식생을 조사 기록하는 ‘제주해녀문화 총서’ 발간 사업 중 ‘성산·표선’ 편 발간을 추진한다. 제주도내 해안가에는 해녀들이 조업을 했던 다양한 바다 속 지형과 지물에 대한 명칭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해녀들의 물길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이를 총망라하는 사업을 2019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 조천과 구좌의 해녀 바다발을 조사한 ‘제주도 해녀문화총서’ 1권을 발간한 바 있다. 고대로그자

해녀문화총서에는 해녀들이 물질하는 바다 속 바위와 웅덩이, 모래밭, 자갈밭 등이 지도위에 ~빌레, ~여, ~개 등 제주 고유어로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특히 한 마을 당 50여 곳에서 90여 곳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중요한 어장 지명은 드론을 이용해 상세하게 기록했다. 양홍식 도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제주도내 읍면동 단위로 제주도 전역을 조사 기록해 총 7권의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보고서는 제주도 해녀의 해양지식과 관련된 종합조사 보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우리의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되기를

추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모

4월3일은 4·3희생자 추념일입니다.

- 올해 73주년 추념식은 ‘코로나-19’ 비상사태로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간소하게 병행됩니다.
- 도민과 유족 여러분께서는 평화공원 방문을 자제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중계 방송을 시청하면서 추모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평화공원 방문 시에는 12시 이전에는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위패 봉안실에 가실때에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입장되지 않도록 '거리두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묵념사이렌 울림안내

- 4월 3일 오전10시부터 1분간, 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 도민 여러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추모의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064)710-8433~5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